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사람과 개의 관계에 대한 단상

사이 주위에 불이 나자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 불을 끄고 자신은 희생했던 이야기다. 옛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했는데 오수 지역에 가면 이를 기리는 의견비와 의견공원이 있어 우리 조상이 예부터 개와 관계가 돈독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삼살개와 진돗개는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우리의 조상과 삶을 같이해 온 자랑스러운 토종견으로 자리하고 있다.

만 옛날부터 개들은 사냥꾼으로, 전쟁터의 용사들을 돕는 군견으로, 그리고 집을 지키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여행시 좋은 동반자로 인류와 동고동락해 왔다. 그럼 인간과 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 또 그들의 다양한 품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늑대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가축화 초기 개들의 뼈와 이빨은 소형 늑대의 것과 유사했고 개와 늑대의 행동도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에서 나타나는 90가지 행동 패턴 중 늑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은 19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며, 아마 늑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패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 여겨진다. 늑대는 포유동물 중 가장 사회적인 동물로 사냥할 때에는 모두가 동참하고, 서로가 평생 동안 동반자가 돼 주며, 서로의 새끼를

보살피고 돌보며 놀아주는 행동은 흡사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고고학자는 그의 저서 '인간의 가장 최근 친구에 대한 새로운 고찰'에서 개의 봉사 정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개들은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조상인 늑대들이 서로 간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힘을 그들, 즉 개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의 다양한 품종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늑대의 가축화가 이어지는 시기에 인류는 작고 고립된 부족사회로 분열돼 갔으며, 그들을 따라 늑대들도 매우 작은 동계교배(同系交配) 그룹으로 분열됐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부족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늑대와 이계교배(異系交配)의 기회가 아주 드물게 됐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동물이 소집단으로 격리되고 서로 유전자 교류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전적인 변이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됐다.

또한 유전적으로 늑대는 매우 변이를 잘 일으키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보호된 환경에서 늑대 고유의 높은 변이성(變異性)이 더욱 확대돼 새로운 형질을 갖춘 종류로 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민족의 이동은 개들의 품종 다양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유목민들에

의해, 지역적 특색에 의해, 민족성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개들을 육종하기 시작했다. 개들의 주인은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 시대 이후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종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가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품종이 생기게 된 것이다. 품종의 정의는 '같은 종류로부터 생긴 동물의 혈통'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개성에 따라 다른 품종과의 교잡이 이루어졌고, 돌연변이를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개들은 사람의 족보보다 더 복잡하고 뒤섞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 형태도 유행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나만의 품종을 갖고 싶은 열망과 개성이 뛰어난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브리더(breeder)들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고유 품종과 외형의 불일치로 인해 개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반려인)의 관계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관계임을 우리 스스로 잘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과 친구가 돼 준 개들과 우리가 오랫동안 공존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社說

경도 골프장 임대 협상 특혜 시비 없도록

여수 경도에 1조 원대를 투자키로 한 미래에셋컨소시엄과 전남개발공사의 골프장·콘도 임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가 경도 매각 과정에서 전라 부재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헐값 매각'을 했다는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 임대 협상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은 지난 1월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33억 원에 일괄 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50억 원 납부를 시작으로 2019년 950억 원의 중도금, 2024년 2430억 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최종 인수전에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과 콘도를 미래에셋이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최근 임대 방식과 수수료 등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연 매출액 200

억 원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30~34% 정도 임대료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의견집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 미래에셋으로 운영권이 넘어간다. 일련의 흐름 상 양측의 임대 계약에 큰 결림돌은 없어 보인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추진과 연륙교 건설 계획처럼 매각 대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경도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헐값 매각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도는 재정에 더 도움이 될 계약을 놓고도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매각에만 급급해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골프장·콘도 임대 계약은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임대 수수료를 줄여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경영 실적에 따른 수익 배분도 꼼꼼히 따져 다시는 특혜 시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KTIX 무안공항 경유 합의' 이것이 협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다.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한 것이다. 이처럼 양당이 호남 지역 숙원사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기대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근 '호남권 KTI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호남선KTIX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설계 등에 필요한 154억 원가량이지만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여부에 따라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연 부총리도 양당의 합의 소식이 바로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

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선KTI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와 관련해 최근 해당 노선이 적합하다는 정부의 결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냐는 박종연(국민의당) 의원의 물음에 이처럼 답했다.

이에 윤창현 광주시장은 "호남선 KTI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와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을 150만 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집권 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맞잡고 지역민의 여망을 받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의 말처럼 우리는 이번 양당의 합의를 바람직한 상생과 협치의 모델로 높이 평가한다. 무안공항 활성화 외에도 풀어야 할 호남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당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호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충(忠)의 반성

공급합니다. "잘 해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생각일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올해도 대충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일지 말입니다.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고 금년 이 지나면 내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되고 아쉬운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새롭게 각오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이란 언제나 반성이 바탕이 되어 세워야 합니다. 반성 없는 계획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입니다.

반성(反省)이란 단어는 한자 그대로 '시간을 되돌려 살펴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는 의미입니다.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에 물을 차갑게 만들려고 하면 먼저 주전자 밑의 불을 끄고 그 위에 냉수를 부어야 합니다. 주전자 밑의 불을 끄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참된 반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 위에 냉수를 붓는 것은 참된 반성의 토대로 대중에게 선행을 베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적폐는 참된 반성이 없으면 잘못된 관행으로 쌓여온

폐단이 굳어져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탓입니다. 이를 드러내 반성과 책임을 묻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이 오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시대적 과제인 반성의 산물로 충(忠)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충(忠)이라는 글자는 가운데 마음이 바로 충입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양심을 숙여 스스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밖으로 사회를 숙여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은 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전에서는 "신하는 충으로써 임금을 받들어야 한다. 충은 군주의 명령을 거스르더라도 군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충은 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터져나온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상실이 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충이라는 가치는 비단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

에 있어서도 충이라 함은 법을 준수하고, 효도와 우애를 다하고, 정당한 생업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떠난아아 할 과제가 된 적폐 청산은 결코 눈곱도 가아할 과제는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온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통렬히 반성하고, 새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12월은 반성의 달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여 청산해야 할 일들도 여전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과제중 하나가 이번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야 할 양심수 석방의 문제입니다. 38명의 양심수 전원 모두 석방돼, 잘못된 시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성탄절 성스러운 날에 모두 풀려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따뜻한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에서 울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고



나석주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본부장

광주 지하철, 서비스에 행복을 담다

서, 평창 올림픽의 특별한 설렘을 구매하는 '이미지 소비재'가 된 것이다.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팔아라." 세계 최고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쉘츠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휴먼 마케팅을 펼쳤다. 그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사람'에 두고 자연스런 성장을 유도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복지와 전문성에 투자해 상품의 질을 높임은 물론 공간 이미지화를 위한 인테리어에 정성을 들였다. 특히 상품 전달시 흔하사 용되는 진동벨이 아닌 고객의 이름을 직접 불러 친근과 존중을 보여준다. 통유리 너머의 식막한 바깥세상과 분리된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 다정한 미소까지 담아 살짝개 건네주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고객은 비단 커피 한 잔이 아닌 이 특별한 기분을 함께 구매하는 것이다.

평창 롱패딩과 스타벅스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 뿐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

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바로 시민의 '행복'이다. 공사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철도 운행'을 책임져야 한다. 시민들은 이에 더해 친절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바라고 있으리라. 또한 모범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우수 공기업이 되는 것 역시 시민의 기대일터다.

공사는 고객만족경영 추진위원회, 고객 모니터, 블로그 시민기자단 등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각종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모든 경영 활동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유수의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으로부터 해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며 고객만족 도시철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의 기대를 넘어선 가치, 그 이상의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광주지하철의 진정한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문화예술

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지하철 사업 추진으로 시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손쉽게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접하고 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지하철 예술무대'와 2호선 건설 예정지 주변 학교에서 펼치는 '고고릴레이 이벤트'는 서비스의 공간적 한계까지 깨는 파격적인 선택이다. 그러다 시민이 있는 바로 그 곳이 도시철도의 서비스가 펼쳐지는 무대인 것이다. 기대 그 이상을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 우리는 이 같은 신선한 행복 경험을 시도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워드 쉘츠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브랜드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은 광주 지하철의 마음도 시민의 가슴속으로 뜨겁게 달려가고 있다. 광주 지하철은 추위 끝에 떨어지는 땀안 눈송이처럼 따뜻한 일상에 의지가 되는 희망의 공간이 되어드리고 싶다. 진심은 통(通)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광주 도시철도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Be-eum-gu' (無等鼓) featuring a table with names and titles, and a photo of a person. The table lists names like Kim Hong-gi and Kim Il-hwan, and titles like 'Be-eum-gu' and 'Be-eum-gu'.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